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인신권 침해 민사분쟁 사법해석 발표

지난 8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인신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와 동시에 인터넷 인신권 침해에 관한 8개의 전형적인 판례도 공포하였습니다. '규정'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i)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관할법원과 소송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iii) 인터넷상의 정보를 재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과실 및 그 정도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으며, (iv)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v) 불법삭제 등 인터넷 불법산업에 대한 책임부담, (vi) 피해자에 대한 사법보호 강화 조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 폐지제도 정식 발표

지난 10월 1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 폐지제도를 개혁하고 엄격히 집행할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상장 폐지제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폐지제도는 (i) 자진 상장폐지제도, (ii)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한 강제 폐지제도, (iii) 거래기준 미달 시 강제 상장폐지 지표 엄격화, (iv)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 폐지정리시기 설치, (v) 폐지회사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5가지 측면에서 개혁하였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대변인 장쇼쥘(张晓军)은 이번 상장폐지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우열을 가리고 시장 효율을 향상하여 주식시장에 이성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자들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층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안 공포, 외상투자 제한 대폭 감소

지난 11월 4일,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안을 발표하여 전 사회적으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전 목록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안은 제한류 조목을 기존의 79조에서 35조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외자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도 한층 줄였는데 “합자, 합작” 조목도 43조에서 11조로 축소되었고, ‘중국 측 지배지분’ 조목도 44조에서 32조로 축소되었습니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 목록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목록에 의하면 자동차전자, 기중기, 변전설비, 유명 배갈(白酒)간선철도, 지하철, 전자상거래, 토지개발 등 항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취소함에 따라 내·외 자본에 대한 진입자격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발표, 지적재산권법원 관할 명시

지난 10월 31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지적재산권법원의 사건관할 및 심급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적재산권법원이 관할하는 1심 사건은 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i) 특허 등 기술 유형의 민사 및 행정사건, (ii)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영역 중 행정결정 또는 처벌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iii) 유명상표인정 민사사건. 그 밖에,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의 전속 관할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주로 중앙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의 지적재산권 확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베이징 법원에서 전속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